

활성화 효용성 검증: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선주경(고려대학교)

강동현(고려대학교)

I. 론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과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조기 발견 및 개입과 치료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의 교육활동 회복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시작했다 (교육부, 2021). 이러한 국가 차원의 움직임은 학생들에게 이뤄지는 적절한 심리적 지원이 학업을 이어나가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교육부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도 진로, 학교폭력 등 여러 분야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을 지원하여 학생들이 학교에서 원활하게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2에 따르면 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두거나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전문상담순회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초·중·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전국 평균 3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라일보, 2021). 반면 일부 학교에서는 심각한 사회 문제인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다문화 가정 학생의 부적응, 진로 선택에서의 방황 등 다양한 유형의 청소년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학생들의 진로 상담과 생활지도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상담교사를 적극적으로 배치해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배인수, 이윤주,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고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상담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것이 고등학생들의 학업중단·학업성취도 등의 변화 추이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 상담 서비스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독립 변인을 고등학교에 배치된 상담 교사 역할의 활성화 기준으로 보되 학생들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 학생의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요인들도 독립 변수로 함께 분석하여 학교 문제로 인한 학업중단을 줄일 수 있는 학생의 심리적 지원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II. 배경

1. 상담의 정의 및 목적

심리상담의 하위 분야 중 하나인 학교상담은 학교장면에서 학생의 학교적응 및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전문적 조력과정(구광현 외, 2005)으로 정의된다. 1999년 전문상담교사 제도가 법제화 된 이후, 한국의 학교상담자는 2009년부터 전문상담교사 또는 전문상담사라는 이름으로 단위학교에 배치되기 시작하였다. 학교상담은 학교상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상담과 상담관련 프로그램을 말한다. 학교상담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임은미, 조남정, 2017).

- 1) 학생의 심리적 위기 해소 지원
- 2)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 3) 학생의 문제해결 능력 개발 지원
- 4) 학생의 심리적 안녕과 행복 증진

2. 학업 중단의 정의와 현황

‘학업중단’이란 어떤 이유에서든 일정한 교육과정을 끝내지 않고 학업을 중도에 그만 두는 것을 의미한다 (김상현, 양정호, 2013).

교육통계서비스(KESS)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고등학교의 학업중단 학생 수는 14,439명(1.1%)이다. 이는 초등학교(11,612명, 0.4%)나 중학교(5,976명, 0.5%)의 학업중단 학생 수에 비해 높은 수치다. 고등학생들의 학업중단 이유에는 질병(정서장애 포함), 가사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학교폭력, 흡연, 대인관계 등 부적응의 비율이 약 21.4%로 상당수를 차지한다. 학업중단 현상은 해당 학생뿐 아니라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자영 외, 2010), 학생들을 위한 예방적 접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1년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 횟수 증가의 여파로 학업중단율이 전년 대비 0.4%p 가량 감소했다 (이테일리, 2021). 하지만, ‘2021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 결과에 따르면 학업중단의 요인이 될 수 있는 학교폭력의 피해응답률이 1.1%로 전년 대비 0.2%p 증가하는 등 학생들의 학업중단의 원인이 되는 교내의 문제 상황들은 근절되지 않았으며, 대면수업을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한 이후로 학교 부적응 등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의 교내 문제들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학생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심리, 진로 상담을 제공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본인에게 맞는 진로를 찾아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3. 연구 분석

고기홍 (2003)은 청소년들의 학업중단 원인을 개인, 가정환경, 학교환경 요인으로 구분하고 각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상담적 개입방안을 제안하였다. 상담개입의 목적 및 목표는 당면한 현안문제의 해결 촉진, 진로결정 촉진, 지지체제 구축, 사전 예방활동 촉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고기홍, 2003). 물론 교내 상담 체계의 체계적인 구축과 진행에는 여러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지만 학교 상담 체계는 전문상담교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 상담 영역에만 집중되었던 것을 자문과 조정, 교실단위 상담활동, 학교상담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 다양화해야 한다는 논의와 함께 꾸준히 발전해왔다 (강진령, 손현동, & 조은문, 2005). 학업중단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교내 상담 체계도 활발하게 구축되고 있고, 이에 대한 효과를 검증한 연구들도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가해행동의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의 학교폭력 가해행동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의 가해행동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김지영, & 정정숙, 2011).

현재 다양한 고등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학교와 학생의 특성에 맞는 상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 상담 체계가 활성화된 학교에서의 학업중단, 학업 성취도, 학교폭력 현황 등을 학교 상담 체계가 활성화되지 않은 학교와 비교하여 학교 상담에 대한 효용성을 검증함으로써 고등학교에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 구축을 장려하는 근거를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III. 방법

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학교 상담의 효용성을 고등학교 중심으로 검증하고자 하였기에 에듀데이터 서

비스(EduData Service System: EDSS, 이하 에듀데이터)의 고등학교 자료를 활용했다. 활용한 모든 데이터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Covid-19로 인해 현장 수업이 제한되고, 온라인 수업 위주로 진행된 2020년, 2021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에듀데이터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교육통계 자료, 나이스 자료, 학교정보공시 자료,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그리고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자료 학교 아이디를 바탕으로 결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변수

본 연구에 포함되는 변수들은 <표 1>과 같으며, 종속변수는 단위학교의 ‘학업중단율’, ‘학업 성취도’ 다. ‘학업중단율’의 경우 연간 학교별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에서 각 학교의 학생수를 나눈 수치다. ‘학업 성취도’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국어, 수학, 영어) 자료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학수학능력시험(국어, 수학, 영어) 점수를 학교 별로 각각 상, 중, 하로 구분하였다.

<표 1> 분석에 포함된 변수

변수		변수 설명
립 변 수	총 학교 폭력피해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각 연도 고등학교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건수를 합하여 각 연도 고등학교 총 학교폭력 건수로 정의 - 산식: 폭행감금 + 금품갈취 + 강제심부름 + 심한욕설,놀림,협박 + 집단적반복적따돌림 + 사이버따돌림 + 기타
	가해학생처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각 연도 고등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벌유형별 건수를 합하여 각 연도 고등학교 총 가해학생처벌 건수로 정의 - 산식: 출석정지건수 + 학급교체건수 + 협박금지건수 + 서면사죄건수 + 전출건수 + 심리치료건수 + 학교봉사건수 + 사회봉사건수 + 퇴학처분건수
	정규교육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각 연도 고등학교별 정규교육시간으로 정의 - 산식: 정규교육시간
	가해방지교육건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각 연도 고등학교별 학교폭력방지 교육건수

종 속 변 수			정의
	전문 상담교사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식 : 가해방지교육건수 - 정의: 각 연도 고등학교별 상주하고 있는 전문상담 교사 수로 정의 - 산식 : 전문상담교사 수
	전문 상담교사자격교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각 연도 고등학교별 전문상담교사자격증 가지고 있는 교원의 수로 정의 - 산식 : 전문상담자격교원 수
	진로 상담교사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각 연도 고등학교별 상주하고 있는 전문 상담교사 수로 정의 - 산식: 전문 상담교사 수
	학업중단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각 연도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졸업 이전에 학업을 중단한 학생의 수로 정의 - 산식: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전체 학생 수
	학업 성취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근거해 학생들의 교육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준거참조평가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어/영어/수학 교과에 대해 평가. 본 연구에서 데이터를 활용했던 기간 중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전수평가 체제로 진행했지만,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표집평가 체제로 진행. - 산식: 교과별 각 등급의 비율을 산출한 뒤 점수를 배정하여 각 학교별 총점 산출 → 데이터 내 총점들 중 33.33% 기준점과 66.66% 기준점으로 상, 중, 하 등급 구분
		대학수학능력시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고등학교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가. 본 연구에서는 전 과목 중 국어/영어/수학 교과 성적에 대해 학교 별로 등급을 매겨서 분석에 활용. - 산식: 교과별 각 등급의 비율을 산출한 뒤 점수를 배정하여 각 학교별 총점 산출 → 데이터 내 총점들 중 33.33% 기준점과 66.66% 기준점으로 상, 중, 하 등급 구분

3. 방법

연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에듀데이터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된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조사를 연계하여 지역별 고등학교 전문 상담 교사의 분포가 학생 학업성취도(수능성적) 및 학업 중단율에 미친 영향에 대해 회귀분석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종속변수 Y 를 학업 성취도(수능성적)와 학업 이탈률(학업 중단율)으로 봤을 때, 이를 순서 범주형 변수로 보고 순서형 범주 모델(Order Logit Model)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 종속변수 Y 가 학업 성취도일 때, Y 가 가지는 값을

1 : 기초학력 미달, 2 : 보통학력, 3 : 보통학력 이상으로 정의하겠다.

(아닐 시 위와 같이 변환하여 적용 예정)

n 은 전체 데이터 개수로 놓는다.

종속변수 Y 는 각 학교의 국어, 수학, 영어의 과목에서 각 학교마다 등급 별로 비율을 계산하여 등급에 점수를 매긴 뒤, 이 점수들을 합하여 총점을 기준으로 상대적 기준으로 각 학교의 교육수준을 3단계로 구분하였다.

2) 종속변수 Y 가 학업 이탈률일 때, Y 가 가지는 값을

1 : 이탈률 낮음, 2 : 이탈률 보통, 3 : 이탈률 높음 으로 정의하겠다.

종속변수 Y 는 각 학교의 가정 환경이나 학교 폭력 같은 자퇴 학생 수를 총 학생 수로 나누어 비율로 변경한 뒤, 상대적 기준으로 각 학교의 이탈률을 3단계로 구분하였다.

학업 성취도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순서형 범주의 데이터 형태를 띄고 있다.

$$Y = (j) = \pi + \beta_j, \quad j = 1, 2, 3$$

$$P(Y = 1) + P(Y = 2) + P(Y = 3) = 1$$

(이 때, π_i 는 i 번째 변수가 일어날 확률을 의미한다.)

같은 순서형 범주 데이터에서 $P(Y \leq j)$ 는 로지스틱 분포를 따른다.
따라서 밑처럼 설계한 순서형 범주 모델(Order Logit Model)을 적용하면,

$$\logit [P(Y = j)] = \log \left[\frac{P(Y = j)}{1 - P(Y = j)} \right] = \log \left[\frac{\pi_1 + \dots + \pi_j}{\pi_{j+1} + \dots + \pi_3} \right], j = 1, 2$$

$$\logit [P(Y = j)] = \alpha_j + \beta_1 x_1 + \beta_2 x_2 + \dots + \beta_p x_p, j = 1, 2$$

위의 설계된 모델 수식에서 계수 $\alpha_j, \beta_1, \dots, \beta_p$ 는 최대가능도방법(Maximum Likelihood method)으로 추정법으로 $\alpha_j, \beta_1, \dots, \beta_p$ 을 추정한다. 이 추정량들은 다음의 가능도 함수를 이용하여, 가능도 함수에서 각각의 계수로 미분한 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을 그 계수의 추정량으로 추정한다.

$$L(\alpha_j, \beta_1, \dots, \beta_p) = \prod_{i=1}^n [P(Y = j)]^{y_i} [1 - P(Y = j)]^{1-y_i}$$

$$= \prod_{i=1}^n \left(\frac{e^{\alpha_j + \beta_1 x_1 + \beta_2 x_2 + \dots + \beta_p x_p}}{1 + e^{\alpha_j + \beta_1 x_1 + \beta_2 x_2 + \dots + \beta_p x_p}} \right)^{y_i} \left(\frac{1}{1 + e^{\alpha_j + \beta_1 x_1 + \beta_2 x_2 + \dots + \beta_p x_p}} \right)^{1-y_i}$$

$$\logit [P(Y = j)] = \alpha_j + \beta_1 x_1 + \hat{\beta}_2 x_2 + \dots + \hat{\beta}_p x_p, j = 1, 2$$

이 같은 수식을 활용하여 각 범주의 평균에서의 한계효과를 도출한다.

독립변수로는 각 학교별 총 학교폭력 건수, 정규 교육시간, 진로 상담교사 수, 가해학생처벌 수, 가해방지교육건수, 전문 상담교사 수, 전문 상담교사자격교원 수를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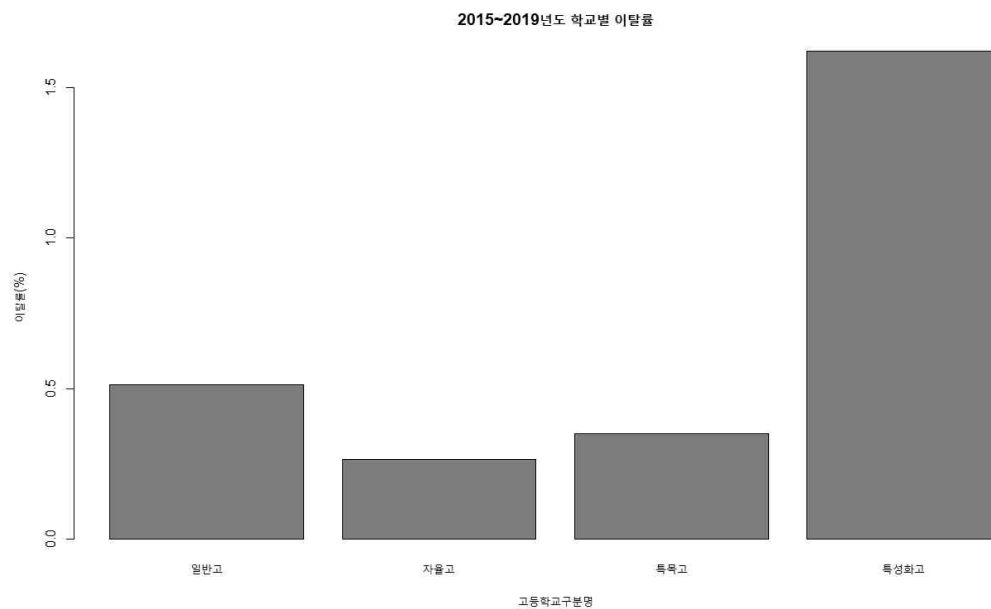
총 학교폭력 건수의 경우, 각 년도 별 피해 유형 별 건수를 합하여 변환하였으며, 가해학생처벌 수와 가해방지교육건수 또한 각각의 처벌 유형별 건수와 교육 유형별 건수를 합하여 하나의 변수로 변환하였다. 나머지 변수의 경우 각 학교별로 주어진 데이터에서 그대로 추출하여 사용

IV. 결과

1. 변수 별 현황 분석

본 연구는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주요 변수들에 대해 학교 종류 별로 현황을 표와 그래프로 시각화하여 파악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을 기준으로 변수들의 빈도 수를 확인하여 이탈률, 학업성취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에 대해 학제 유형 별로 그래프를 그려 보았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변수의 경우 남녀공학 분류에 따른 시각화도 진행했다. 또 하나의 종속변수인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피해 유형에 따른 시각화로 현황을 분석했다.

. 학제 유형별 이탈률



[1]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학제 유형별 이탈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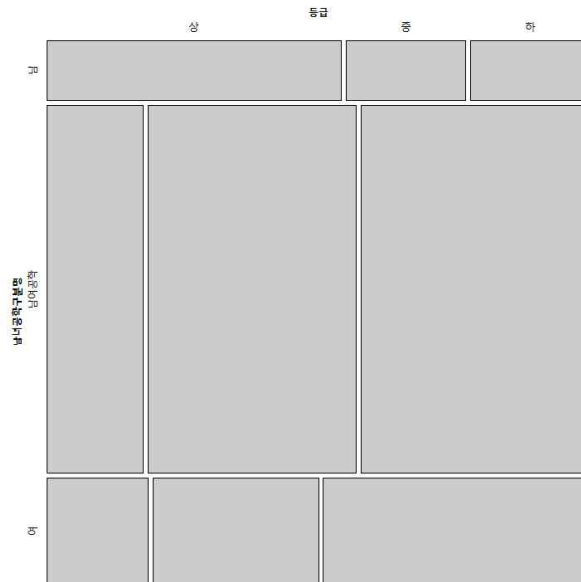
[그림 1]을 보면, 특성화고로 분류되는 가사, 공업, 상업, 수산 실업고등학교 등의 이탈률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은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순으로 이탈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연도별/남녀공학 구분별 학업성취도

〈 2〉 학제유형별 학업성취도

	고등학교 학제 유형	등급		
		상	중	하
2015	일반고	305	169	80
	자율고	20	9	5
	특목고	15	23	101
	특성화고	46	196	224
2016	일반고	89	165	319
	자율고	10	10	24
	특목고	126	10	5
	특성화고	216	226	60
2017	일반고	143	109	222
	자율고	14	5	29
	특목고	53	127	23
	특성화고	259	254	510
2018	일반고	98	280	163
	자율고	12	29	14
	특목고	157	38	54
	특성화고	325	241	379
2019	일반고	206	307	102
	자율고	20	28	20
	특목고	46	57	153
	특성화고	391	250	375

〈표 2〉에서 학제유형별 학업성취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 고등학교의 경우 2015년에 학업성취도 등급이 ‘상’ 인 학교의 수가 다른 등급의 학교의 수보다 많았지만, 2015부터 2018년까지 ‘상’ 보다는 ‘중’ 과 ‘하’ 에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019년에 ‘상’ 등급인 학교의 수가 200개가 넘지만 여전히 ‘중’ 등급의 학교의 수보다 적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경우 2015년, 2019년에는 ‘하’ 등급의 학교의 수가 다른 등급의 학교 수보다 월등히 많았지만, 다른 연도에는 ‘상’ 등급이나 ‘중’ 등급에 많이 분포된 것으로 확인된다. 특성화 고등학교도 연도마다 등급의 분포가 상이하게 나타났다.



[2]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남녀공학 구분별 학업성취도 등급 비율

[그림 2]에서는 남녀공학 구분에 따라 학업성취도 등급의 분포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남학생들만 다니는 고등학교가 다른 구分的 고등학교들에 비해 ‘상’ 등급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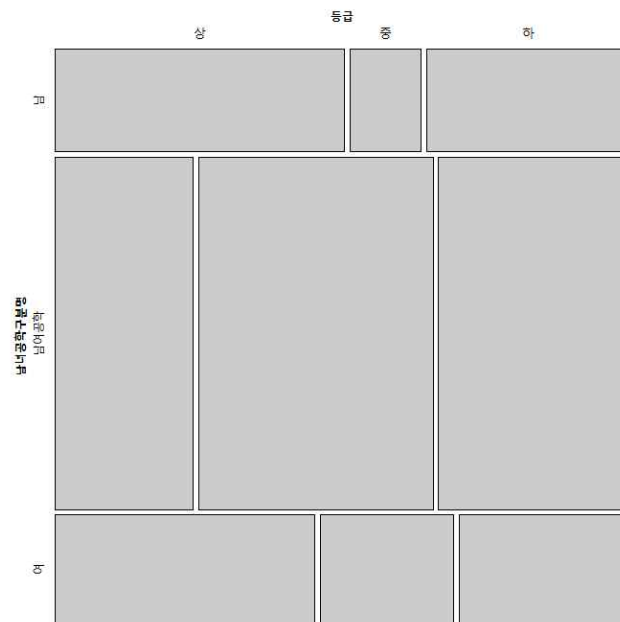
. 연도별/남녀공학 구분별 대학수학능력시험

<표 3> 학제유형별 대학수학능력시험

	고등학교 학제 유형	등급		
		상	중	하
2015	일반고	408	167	428
	자율고	66	4	35
	특목고	27	33	16
	특성화고	5	285	25
2016	일반고	382	170	413
	자율고	57	4	31
	특목고	32	29	14
	특성화고	6	267	25
2017	일반고	411	177	438

		64	6	35
	특목고	35	33	12
	특성화고	6	285	23
2018	일반고	404	182	439
	자율고	59	5	38
	특목고	35	28	13
	특성화고	6	281	21
2019	일반고	39	172	429
	자율고	57	30	7
	특목고	41	30	7
	특성화고	7	272	14

<표 3>을 보았을 때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의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에 따른 유의미한 분포 패턴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특성화 고등학교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일관되게 ‘중’ 등급에 분포가 치우쳐져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남녀공학 구분별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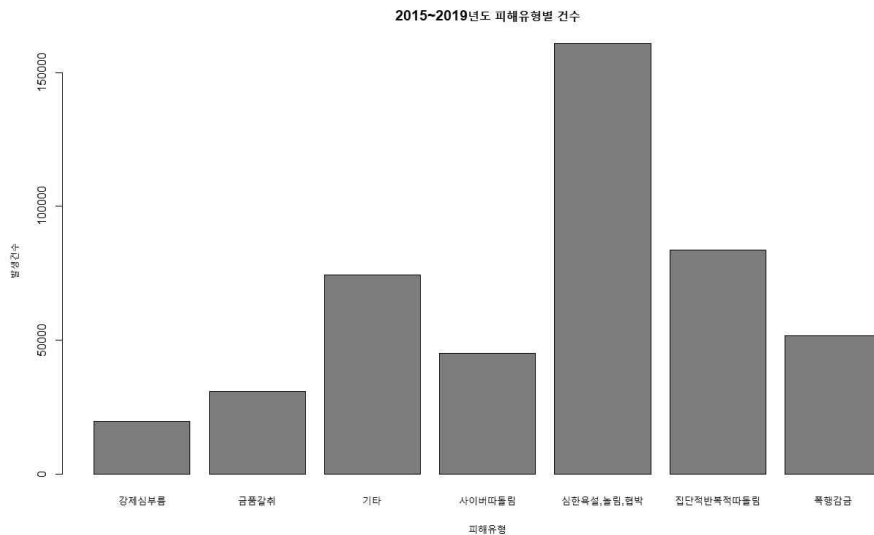
[그림 3]에서는 학업성취도 등급을 나타냈던 [그림 2]와 다르게 남자 학생만 다니는 남자 고등학교와 여자 학생만 다니는 여자 고등학교가 다른 등급에 비해 ‘상’ 등급에 분포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유형별 학교폭력 피해 건수

< 4> 유형별 학교폭력 피해 건수

	분류	합계
2015	강제 심부름	5447
	금품 갈취	9150
	사이버 따돌림	11744
	심한 욕설, 놀림, 협박	42407
	집단적/반복적 따돌림	21498
	폭행감금	15066
	기타	20627
2016	강제 심부름	4111
	금품 갈취	6564
	사이버 따돌림	9466
	심한 욕설, 놀림, 협박	34519
	집단적/반복적 따돌림	10658
	폭행감금	12116
	기타	15640
2017	강제 심부름	3846
	금품 갈취	6311
	사이버 따돌림	10115
	심한 욕설, 놀림, 협박	34547
	집단적/반복적 따돌림	16430
	폭행감금	11383
	기타	16818
2018	강제 심부름	2977
	금품 갈취	4814
	사이버 따돌림	8062
	심한 욕설, 놀림, 협박	25837
	집단적/반복적 따돌림	12880
	폭행감금	7429
	기타	12739
2019	강제 심부름	3248
	금품 갈취	4137
	사이버 따돌림	5807
	심한 욕설, 놀림, 협박	23471
	집단적/반복적 따돌림	15031
	폭행감금	5628
	기타	8588



[4]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유형별 학교폭력 피해 건수

< 4>와 [그림 4]에서는 유형별 학교폭력 피해 건수의 수치와 분포를 각각 확인할 수 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유형별 학교폭력 피해 건수 분포를 보았을 때 ‘심한 욕설, 놀림, 협박’ 이 다른 유형에 비해 월등하게 많은 건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집단적/반복적 따돌림’ 과 ‘폭행감금’, ‘사이버 따돌림’ 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강제 심부름’, ‘금품 갈취’ 가 이어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

본 연구는 순서형 로짓모형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국가수준 수능 성취도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서비스 자료에 연계하여 초·중등교육에서 전문 상담교사 수가 학생 학업 성취도(수능 성취도)와 학업 이탈률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표 6>과 같다. <표 5>는 순서형 로짓모형을 적합하여 추정된 초·중·고등학생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에 대한 전문 상담교사 수 분포 효과로 전문 교사 수 변수에 대한 한계효과이다. <표 5>에 따르면, 진로 상담교사수는 각 고등학교의 평균적인 고등학생 학업 성취도와 양의 상관관계 보인다. 예를 들어, 전문 상담교사의 수가 1명 많을수록 오즈비가 1.71배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학업성취도는 총 학교폭력건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학교폭력건수가 1 증가할수록 순서형 범주에 대한 오즈비는 0.99배 감소한다. 다만, 가해학생 처벌수가 높을수록 반대로 오즈비가 1.01배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외로 <표 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정규교육시간의 경우, 학업 성취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예상 외로 가해방지 교육건수가 높을수록 학업성취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통해, 전문 상담교사수와 이로 인해 증가하는 학교폭력방지 교육 건수와 상담 건수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표 6>의 전문 상담교사수와 학업 이탈률의 상관 관계를 봤을 때, 전문 상담교사 수와 학업 이탈률은 예상 외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전문 상담교사 수가 한 명 증가할 때, 학업 이탈률의 오즈비가 1.35배 증가하는데 이는 <표 6>의 총 학교폭력건수와 학업 이탈률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오즈비의 증가율 1.02배 보다 큰 수치이다. 하지만 진로 상담교사 수의 경우에는 반대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학업 이탈률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교사 수보다 진로 상담교사 수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 1> 학업 성취도 $P(Y < j)$ 에 대한 회귀 계수

Order Logit Model	Coefficients
학교폭력건수	0.9981
정규교육시간	0.9999
진로 상담교사 수	0.9995
가해학생처벌 수	1.0124
가해방지교육건수	1.0379
전문 상담교사수	1.7089
전문 상담교사자격교원수	1.075

<표 6> 학업 이탈률 $P(Y < j)$ 에 대한 회귀 계수

Order Logit Model	Coefficients
-------------------	--------------

학교폭력건수	1.0229
정규교육시간	0.9999
진로 상담교사 수	0.9997
가해학생처벌 수	1.0150
가해방지교육건수	1.0279
전문 상담교사수	1.3595
전문 상담교사자격교원수	1.0419

< 7> 학업 이탈률 $P(Y < j)$ 에 대한 회귀 계수(진로상담교사 수 변수 제거)

Order Logit Model	Coefficients
총 학교폭력건수	1.0234
정규교육시간	0.9999
진로 상담교사 수	0.9998
가해학생처벌 수	1.0155
가해방지교육건수	1.0293

V.

본 연구는 전문 상담교사 수와 학교 폭력 그리고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학업 중단을 관련 선

바탕으로 학교의 전문 상담교사 수가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학업 중단율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각 학교에 전문 상담교사 배치의 실효성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함에 목적을 두었다.

학교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학제 유형별 이탈율, 학업 성취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유형별 학교폭력 피해 건수에 대한 기술적인 통계를 우선 살펴보았다. 이탈율은 특성화고에서 월등히 높게 나타났고, 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순으로 나타나 특성화고에서 가장 많은 학생 이탈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학업 성취도 등급은 남학교가 여학교와 남녀 공학 대비 상의 비율이 높고 중,하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학업 성취도에서는 남학교 학생들이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준 것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등급에서는 남학교와 여학교가 남녀 공학 학교 대비 상의 비율이 높고 중의 비율이 낮게 나타났고, 하는 비슷한 수준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형별 학교폭력을 비교해보았을 때 심한 '욕설, 놀림, 협박'이 피해 유형 중 가장 높은 건 수를 차지하였다. 이외 '집단적/반복적 따돌림'과 '폭행감금', '사이버 따돌림'이 그 다음으로 많은 피해 건수로 보고되었고, '금융 갈취', '강제 심부름' 순이었다.

전문 상담교사의 유효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으로,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가장 큰 효과가 나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고등학생에 대한 학업 성취도와 학업 중단율을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학교별 수능 등급 비율)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초중등 학교 폭력 관련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학업 성취도에 대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와 학업이탈률은 연속변수가 아니라 분석의 일관성을 위하여 성취수준명의 순위 변수로 변환하여 순서화 로짓모형을 활용하여 전문 상담교사에 대한 한계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된 결과에 따르면 전문 상담교사 수는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일 확률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학업 이탈률의 경우, 고등학교에서 전문 상담교사 수와 학업 이탈률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전문 상담교사 변수를 제거했을 때 학업 이탈률과 학교폭력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학업 이탈률의 경우에는 학업 성취도와 다르게 진로 상담교사 수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데, 이를 통해 학업 이탈률의 경우 학교 폭력만이 문제가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비중이 더 크기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에 배치된 전문 및 진로 상담교사가 교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구체적인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분석도 진행하여 학교상담의 효용성을 보다 더 정밀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

, 손현동, & 조은문. (2005). 학교 상담: 고등학교 상담교사의 역할에 대한 요구 분석. 상담학연구, 6(4), 1351-1368.

고기홍. (2003).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와 상담적 개입방안.

교육부(2021). 학생 심리·정서 회복을 위한 정신건강 전문가 의료서비스 제공 보도자료.

구광현, 이정운, 이재규, 이병임, 은혁기 (2005). 학교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김상현, & 양정호. (2013). 학업중단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배경과 복교 후 학교 생활에 대한 연구. 한국교육문제연구, 31(1), 81-113.

김지영, & 정정숙. (2011). 중학생들의 학교폭력 가해행동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청소년학연구, 18(8), 141-159.

배인수, 이윤주 (2011). 전문상담교사와 일반상담교사 배치 학교 학생들의 학교상담에 대한 인식. 상담학연구. 12(6), 2201-2233.

이데일리(2021.08.26.). 팬데믹의 역설...학업 중단율 15년 만에 최저.

이자영, 강석영, 김한주, 이유영, 양은주 (2010).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중단의 위험 및 보호요인 탐색: 개념도 연구법의 활용. 청소년상담연구. 18(2), 225-241.

임은미, & 조남정. (2017). 전문상담교사, 학교행정가, 상담교수 간 전문상담교사 직무에 대한 인식의 차이. 한국교원교육연구, 34(1), 75-102.

전라일보(2021.10.04.). 코로나에 학생 심리상담 ↑...상담교사는 부족.

허난설 (許蘭雪), 김희선 (金熙宣), & 이지향 (李智?). (2021). 학교상담 직무환경 평가 도구 개발 및 타당화. 아시아교육연구, 22(1), 123-148